

# “여야 모두 힘 합치는 ‘쌍발통정치’ 만들어 가겠다”

전북은 특정 정당의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해 왔다.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당선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텃밭 민심에 대한 변화된 유권자의 반격으로 분석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후보가 외친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심판이 유권자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한 점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정 후보는 지난 18대 19대에서 어렵게 패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도를 높여 나갔다.

특히 농림부장관 역임 등 중앙 무대에서 활동한 점을 내세우면서 시민운동가였던 최형재 후보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분열도 도움이 됐다. 이런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이 효과를 봤다.

당장 새누리당 출신 의원 당선은 차기 전북 정치 구도에서 일대 변화도 예상된다. 새누리당 출신 의원 탄생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운천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Interview 당선인에게 묻다-②전주 을 정운천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의 쓴 잔을 마셨던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지난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후보와의 긴 경합 끝에 111표차로 당선됐다. 정운천 당선인의 국회 입성으로 전북정치 구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 새누리 후보 당선 의미

“열심히 하는 당에게 표를 주겠다는 시민의 뜻 새누리도 변화해 더민주 등 야권과 경쟁해야”

### 앞으로의 포부

“새만금개발·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 전북의 최대현안사업 추진토록 노력할 것”

는 더욱더 시민들 앞에 겸손하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겸손한 자세로 지역주민들을 최고로 모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부담도 있다  
전북에는 새만금개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공적 정착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탄소밸리 조성 등 중차대한 국책사업이 있다.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지역간 통로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제는 서진정책을 통해 중국에 진출해야 한다. 이것은 다만 전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이다. 이에 국회에 ‘새만금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 ▲공약 이행은?

선거기간동안 전북의 시대정신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말씀드렸다.

예산확보, 대기업무처, 사회적 기업펀드 등제가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또한 동북아중심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탄소산업 등 각종 국책사업과 민생119활동 민원들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

여당여원의 중요성은 정부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지역의 현안을 교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라북도 현안사업들이 정부에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

정말 오랜 기다림 속에 전북의 새벽이 열렸다. 이제 여야 모두가 힘을 모으는 진정한 정당정치 쌍발통정치를 만들어 가겠다. 위대한 선택을 해주신 전주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인사 드린다.

/신광영기자

물었다. 한분 한분 현장에서 만나 고충과 애환을 함께하고 민생정치 현장정치 만들겠다는 약속 드렸다. 선거운동 기간 제게 많은 힘을 주신 것처럼, 제가 앞으로는 도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힘을 드렸다.

특히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자신의 일처럼 힘을 주신 캠프관계자들에게 감사말씀 드린다.

아울러 주위분들이 가족들의 선거운동을 보면서 “잔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다. 아내와 아들, 딸들에게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다.

### ▲새누리당 당선인 배출 의미?

전북도민들께서 이제는 한 당에게만 표를 주지 않고, 열심히 하는 당에게 표를 주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제 진정 정당정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정당도 경쟁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전북은 이제 30년의 긴 지역정부를 뛰어넘

고 변화의 시대를 맞이했다. 야당의 외발통정치는 종식되었고, 새로운 시대 쌍발통 정치가 출발했다.

이제 여야가 힘을 모아 전북의 오랜 숙원을 반드시 풀어내겠다.

### ▲111표 차이이다. 재검표당시 아팠나?

사실 저는 자정인 12시에 당선 확정이라는 TV자막을 보고 잠을 잤다. 캠프야기를 들으니 조마조마했고, 천담과 지옥을 왔다갔다 했다고 들었다. 111표로 당선 됐는데, 이

### 이한구, 새누리 전국위의장 사퇴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15일 당 전국위원회 의장직에서 사퇴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원유철 비상대책위원에게 구두로 사퇴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총선 대참패 책임을 지고 총사퇴,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며 사실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이성주 기자

### 김성주 의원 “다시 시작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병 후보)은 지난 15일 덕진동 선거사무소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가졌다.



김 의원은 지지자들과 감사와 격려의 말을 나누면서, 향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당선과 권력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지역과 공약을 위한 착한 정치가 계속해 나갈 것이다”면서 “해단식은 다시 시작하는 날이다. 향후에도 전북의 발전과 대선승리를 위한 활동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도의원 6년, 국회의원 4년을 쉬지 않고 일을 해왔다. 낙선 후 이틀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가만히 있는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며 “지금은 임시실업자가 됐지만 앞으로 그간 못 보였던 분들을 한분 한분, 또는 그룹 단위로 찾아가 만나 뵙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지지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좀 더 잘 대응하지 못한 것은 제 탓이다. 여러분들은 자책하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날이다. 우리 지역에 좋은 정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더민주가 집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신광영 기자

## “단순 캐스팅보터가 아냐... 정치·정책 주도”

###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주승용 의원, 19대 입시국회 제안

국민의당은 지난 15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갖고 창당 이후 준비해온 4·13 총선체제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38석의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당은 단순한 캐스팅보터가 아니다”며 “문제 해결의 정치를 주도하는, 정책을 주도하는 국회 운영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안에서는 협치, 당내에서는 협력의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의 진면목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오직 국민 안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정권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가 우리의 목표”라며 “고분분한 낙선 후보들의 폄파와 눈물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분들께 보내드린 국민들의 소중한 바람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당, 다른 후보를 지지한 분들의 뜻도 헤아려야 한다”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해가자”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참석한 당선인들에게

“여러분은 승자지만 진정한 승자는 위대한 국민이다. 이번 선거는 정치인들의 승리가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더 겸손하게, 국민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청배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의당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 사실상 제야당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성과를 얻었다”며 “특히 호남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정권교체의 주도세력으로 국민의당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국민들께서 야권의 고질적인 패권주의를 청산하라는 사명을 우리 당에 안겨줬다”며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 내년 대선까지 남은 1년8개월 기간 동안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수권 대안정당으로 면모 갖추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단순한 캐스팅보터가 아니다”며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가되 국민들께는 늘 화합하고 단합된

든든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연 의원은 3당 체제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우리의 최대 혁신, 지상목표는 정권교체이고 그 주체 세력은 우리 국민의 힘”이라며 “국민의 힘”을 외쳤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경제 관련이나 세월호 등 민생관련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19대 입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이 세월호 참사 2주 기인데 세월호참사특조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사위원들이 사퇴를 했다. 특조위 조사기간이 6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7월 말 세월호 인양 완료 시점을 감안하면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이 4월15일인데 5월29일까지가 19대 국회 임기인데 앞으로 한달 반 정도 시간이 남았다”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19대 국회를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4·13 국회의원총선거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은 선거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주장했던 바 대로 새누리당도 심판하는 선거지만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심판했다”고 평가했다.

/이성주 기자

### 더민주, 선대위 해단... 비대위체제 전환

### 김종인 대표 “다시 긴장된 자세로 내년 대선 위해 함께 달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4·13총선을 대비해 약 보름 간 운영했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해단식을 갖고 전열을 재정비했다.

더민주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대위 해단식을 열고 20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차분히 되새기고 새출발을 다짐했다. 앞서 더민주주는 2기 비대위 명단을 발표, 공식적인 비대위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었던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이번 선거는 매우 어려웠다”면서 “갑작스레 제1당의 결과는 잠깐 즐기며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긴장된 자세로 내년 대선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합

께 협력 하자”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수도권에서 나타난 성난 민심이 결국은 우리 더민주가 제1당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면서도 “승리에만 도취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잘 음미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다잡았다.

그는 또 “우리 당 나름대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느냐 하는 것을 냉철히 되짚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지금까지 지나칠 정도로 내부적으로 분쇄돼 있는 상태에서

안주를 하다보니 선거라는 것을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뼈저린 경험을 통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 모두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가 이번 선거 내세운 공약이나 다른 당의 공약 등을 모두 잘 검토해서 무엇이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길인지 우리 나름대로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과거의 어느 개념에 사로잡혀 정체성이 뭐니 이런 데에서 탈피하고 모두가 협력해서 정권교체를 이뤄야만 당의 꽃이 제대로 활짝 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각오해주면 좋겠다”고 힘써 말했다.

/이성주 기자

### 정의당 “세월호 진상 규명에 최선”

정의당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20대 국회 전이라도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은 여전히 안개 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예산과 인력 부족, 정부와 여당의 방해로 반쪽짜리 위원회가 돼 버렸다”며 “아직 선제안안과 철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의 공식 활동을 오는 6월까지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원칙과 신뢰보다 빈리와 부패에 익숙했던 대한민국이 만든 총체적 부실의 결과였다”며 “진실규명을 통한 안전사회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용주 기자

### Focus 당선인에게 바란다

## “금융타운 조성 절실 여당의원 배출 큰의미”

### ▶백수정씨(40·회사원·사신동)

“20년만에 전북에서 여당의원이 배출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신동에 사는 백수정씨(40·여·회사원)는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을 말하기 앞서 이번 선거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전통적인 야당 텃밭, 전주에서 여당의원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 당선인은 그만큼 책임과 도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면서 “여당의원 열명 뛰히는 여당의원이 되겠다는 문구가 참 맘에 와 닿았다. 그간 전북을 위해 노력해온 당선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전북도민들의 힘을 이끌어주는 국회의원이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사람으로서 지역에 금융타운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고향이 발전되면 도민들의 삶도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